

[메시지] 프로포즈 (3344 여성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 하용조 목사 (2003. 10)

셋째날 ‘사랑이야기’

구원받은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행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은 무지개, 신기루처럼 잡고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행복이란 ‘구원의 열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구원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도 간암 수술을 네 번했지만 다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신비스럽습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낀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만족한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르고 굶주려 있습니다. 돈에도 굶주리고 건강, 명예에도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만족한 사람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것도 없고, 두 손과 두 발이 없는 사람도 감격하고 감동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갖고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 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에 대한 정의는 ‘인간 안에는 복이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 안에 복이 없는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병들면 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복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내 갈 길이 보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인간은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만든 행복은 다 더러워지고 불완전한 것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행복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태양 아래 나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마음의 어두운 벽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성경 시편 1편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영웅과 스타의 시대인데 성경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화해자, 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 비타민 일곱 가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여러분을 위한 행복 비타민 7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비타민은 인간 성장에 꼭 필요한 유기 화합물인데 비타민의 특징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 수 없고 밖에서 약이나 음식을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행복은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처럼 먹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행복을 위한 세 가지 비타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할 때 행복이 쌓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단절과 비극, 절망을 막아줍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둘째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모든 절망을 막아줍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을 갖길 바랍니다.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순간적이 아닌 영원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있을 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포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성경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행복 비타민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영영 울면서도 기뻐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그 기쁨이 내 불행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을 따라 살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거절하십시오. 감정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십시오.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들어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내 귀를 만드신 분은 들으시는 어떤 분입니다. 듣는다는 개념이 없는 분이 어떻게 내 귀를 만드셨겠습니까? 내 눈을 만드신 그 분은 보시는 분이고, 내 입을 만드신 그 분은 말하시는 분입니다. 내 뜨거운 가슴을 만든 그 분은 느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분은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을 읽으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입니다. 기도로 호흡하면 행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는 인간 언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짐승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감사합니다. 감사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면 찬양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완성입니다

저는 믿음, 희망, 사랑, 기쁨, 기도, 감사라는 비타민 여섯 개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내가 기뻐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삶을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완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자기 안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네 인생에 행복을 줘도 되겠니? 눈물을 닦고 한숨을 멈추렴. 내가 네 인생의 길과 빛, 생명이 되겠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